

서천군, 유부도 갯벌 복원 본격화

기본계획 해수부 승인 국비 51억 확보 폐염전 방조제 철거 생태계 회복 추진

【서천】서천군이 갯벌 생태계에 생명력 회복을 위해 유부도 갯벌 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천군은 국비 약 51억 원을 확보하고 매립 등으로 갯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갯벌 생태계를 살려 낸다는 방침이다.

군은 해양수산부 갯벌자원 활성화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부도 갯벌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았다.

군은 유부도 외곽에 방치된 ‘폐염전 방조제’를 철거해 해수유통이 안 돼 소실됐던 갯벌을 살리고 생태적·공학적 기법을 적용해 갯벌의 건강성과 생명력을 회복하는 유부도 갯벌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서천군은 해양수산부의 ‘갯벌 복원’을 통한 자원화 종합계획 추진’에 맞춰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유부도 갯벌을 복원해 갯벌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귀·멸종 조류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생태관광 거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부도는 검은머리물떼새·황조롱이·노랑부리저어새·마도요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회귀 조류의 서식지로 보전 가치가 뛰어나 2008년 1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천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섬, 유부도 면적은 0.77㎢, 금강 하구에서 서쪽으로 5km 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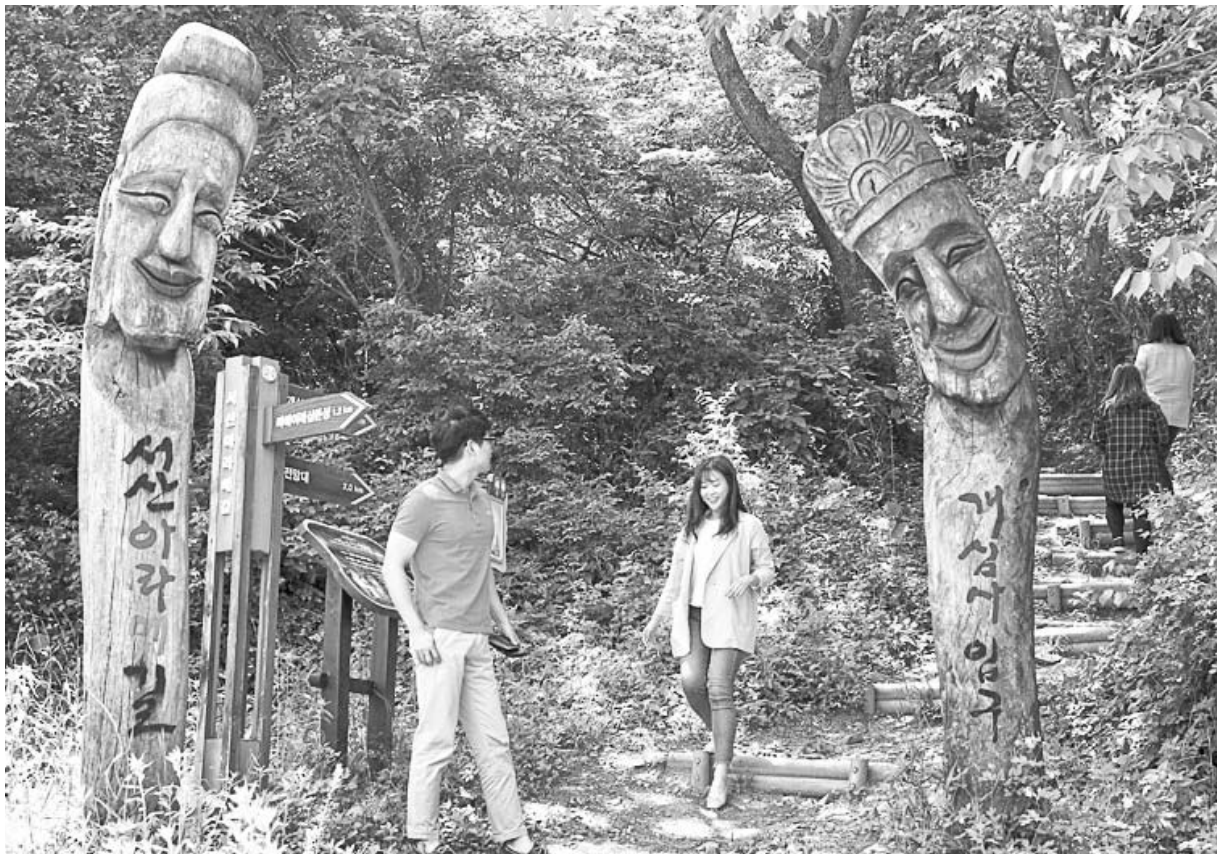
오랜 옛날부터 유배지로 알려져 왔으며 고령 때에도 많은 선비가 유배되어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한다.

섬 이름은 임진왜란 때 부자가 피난을 와서 섬에 머물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살던 섬은 유부도 아들이 살던 섬은 유자도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되고 있다.

이정성 문화관광과장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유부도 갯벌 복원사업을 추진해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회복시켜 청정 서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서해안 최고의 생태 관광지역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부도 주변 갯벌(면적 약 25㎢)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1575억 원으로 서천군은 분석하고 있다.

최병용 기자



친환경 트레킹 코스인 서산아라메길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 아라메길 6개 코스 친환경 트레킹 명소 인기

【서산】친환경 트레킹 코스인 서산 아라메길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바다의 고유어인 ‘아라’와 산의 우리말인 ‘메’를 합쳐 이름 지어진 아라메길은 6개 코스, 4개 지선에 총길이 126km로 조성됐다.

이중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제1코스에 사람들의 발길이 몰린다.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국보 제84호인 마애여래삼존상과 보원사지, 개심사, 해미읍성 등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만나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라메길은 경사가 완만판 낮은 평지인 까닭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고, 바다와 산이 어우러지는 풍경도 감상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고 밝혔다.

정관희 기자

안전·쾌적한 여름관광지 명성 지킨다

보령시, 올 해수욕장 운영·관리계획 확정 대천 내달 16일·무창포 7월 14일 개장

【보령】보령시는 지난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천·무창포 해수욕장 운영·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시와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대천·무창포관광협회 등 유관단체 대표자가 참석해 해수욕장의 운영기간 및 운영·관리 계획을 협의했다.

이번 운영계획 확정에 따라 대천 해수욕장은 지난해보다 1일 빠른 6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운영하며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 입욕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개장식은 7월 14일 오후 5시부터 무창포 해수욕장 잔디광장 상설무대에서 열리고 시 공무원과 아르바이트 학생, 불법행위단속요원,

11시, 입욕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개장식은 내달 16일 오후 6시 머드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리고 시와 관계기관 및 단체 등 455명이 투입된다.

또 무창포 해수욕장은 예년과 달리 관광객 수가 적은 비성수기(6월 말~7월 초)는 운영하지 않고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운영하며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 입욕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개장식은 7월 14일 오후 5시부터 무창포 해수욕장 잔디광장 상설무대에서 열리고 시 공무원과 아르바이트 학생, 불법행위단속요원,

안전관련 기관·단체 등 1일 평균 82명이 피서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에 따라 시는 대천·무창포 해수욕장의 시설 기능보강 및 정비·보수를 마치고 질서유지 및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 주변 환경정비 및 가로수관리 등 안전하고 깨끗한 명품 해수욕장으로 조성해 나간다.

정원준 보령시장 권한대행은 “전국 최고의 피서지인 대천해수욕장과 서해안 최초 개장한 무창포해수욕장은 여름철 1000만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청·호객 등 불법행위의 현저한 감소와 물놀이사고제로, 쓰레기 즉시 수거 등 편안하고 쾌적한까지 갖춰 세계적인 관광지로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 6대 세부공약 발표



【서산】자유한국당이 이완섭 <사진>서산시장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집사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6대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구축 △농업인력 지원 강화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산물 가공·유통 경쟁력 강화 △농·축·수산업 소독기반 강화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등 6대 전략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마을, 생강 등 5대 전략품목에 대한 산지유형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계교 기자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13년째 모월리 봉사활동

【서산】롯데케미칼㈜ 대산공장(총괄공장장 박범진) 자매마을봉사단(탐장 김태열)이 최근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마을에서 환경정화 활동 후 식사제공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롯데케미칼은 이 마을과 2006년 연을 맺은 후 13년간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자매마을봉사단은 마을회관 보수, 마을주변 환경정화활동, 농번기 지원 활동, 연말 선물 증정, 식사 대접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봉사에 초점을 맞춰 왔다.

한편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투데봉사단도 매년 서산지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박계교 기자

태안군, 고품질 공간정보 서비스 과란볼

1/1000 수치 지형도 제작 공모 선정 이달부터 추진

【태안】태안군이 고품질의 공간정보 제공을 위해 이달부터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기존 수치지형도가 주요 지형지물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으며 지난 1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추진하는 ‘2018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군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사업비 50대 50 매칭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총 2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말까지 안면읍 도시지역

(2㎢)과 개발 예정지역(7.75㎢) 등 9.75㎢에 대한 수치지형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치지형도는 항공공측량기술을 활용한 지형, 지명, 위치, 토지이용 등 다양한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해 디지털 형태로 나타내는 지도다.

1/1000 수치지형도는 정확도가 높아 건물과 도로 등 지상시설물과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태안군 공간정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이 가능하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항공사진 및 수치지형도 민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돼 안면도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영 기자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출마자-보령시

가 선거구				
				
	문석주 (52·민) 보령·서천지역위원회 울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박상규 (59·민) 보령소방서 오천면 의용소방대장	박금순 (62·한) 보령시의회 부의장	박상모 (55·한) 보령시의회 의원
				이택영 (60·한) 보령시의회 의원

가 선거구			나 선거구	
				
신순철 (33·바) (주)구시공 대표	백성현 (59·무) 버려지지 않는 오천면 위원장	이홍원 (55·무) 보령방종나눔연구회 부회장		한동인 (52·민) 보령시의회 의원
				박상신 (59·민) 전 보령시의회 의원

나 선거구			다 선거구	
				
서경옥 (61·한)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	김정훈 (47·한) 보령시체육회 이사	김병철 (49·무) 전 충남도인재육성재단 대표협력실장		강인순 (56·민) 보령시의회 의원
				김흥기 (49·민) 한국농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 농산분과장

다 선거구				라 선거구	
					
김충호 (54·한) 전 보령시체육회 부회장	임영재 (56·한) 보령시의회 의원	이상학 (57·바) 충남 서부장애인복지관 홍보요원	박상배 (59·무) 보령시의회 의장		조성철 (40·민)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 청년위원장

라 선거구					
					
최용식 (50·민) 전문자원봉사자	최주경 (57·한) 보령시의회 의원	임기혁 (52·한) 전 대전5동 주민자치위원	최은순 (58·한) 보령시의회 의원	박병국 (69·바) 보령시의회 의정전문위원	김종학 (58·바) 전 보령시의회 의원

김세호 태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

【태안】무소속 김세호 전 태안군수가 25일 태안을 중앙로 78번지 2층에서 가족과 지인,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13 동시 지방선거 태안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김 후보는 “군수에 당선되면 ‘집체된 태안 경제 활성화, 세계적인 강소 문화 도시로 탈바꿈, 최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꿈나무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의원, 여성 일자리 확대, 군민행복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단체아 이익단체, 봉사단체아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방자치의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정명영 기자

기독교 순례지 자리매김 지역경제 한몫

국내 첫 성경전래지 기념관 관람객 7만5000명 돌파

【서천】서천군 서면 마랑리에 위치한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이 지난 22일 기준 누적 관람객 수가 7만 5000명을 돌파해 지역경제에 활짝 웃음꽃이 폈다.

법정 공휴일인 지난 22일 2016년 9월 개관 이래 역대 최대 관람객 1600여 명이 기념관을 방문, 한국 기독교사 중 중요 방문지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 전경. 사진=서천군 제공

기념관은 조선 후기 1816년 서천군 서면 마랑포구에 한국 최초로 성경이 전래된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건립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374㎡에 전시실과 영상관, 카페테리아 등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국 최초 성경 전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곳으로 문화적·종교적·역사적 의미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하며 지친 현대인에게 정신적 위로를 줄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이달 초 김정임스경전사실리모텔링이 완료됨에 따라 기독교 단체와 신자들 방문, 시티투어 연계 등 관람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 누적 관람객 수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마랑포구 일원에서 개최 중인 서천 자연산 광어도미축제와 연계해 기념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

최병용 기자